
정인의 일기

최민하

아! 아야!
오늘도 난 맞는다.

아프다.
너무 아프다.
뼈가 부러진 것 같다.

아무리 울어도
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
날 구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.
스르르 눈이 감긴다.